

<감염증을 둘러싼 이중 통치기술, 혹은 그 실패: 생명정치와 죽음정치> 토론문

백미숙,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단기간에 종료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사회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논의가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김예란 선생님의 발표문은 여러 보도와 글들을 읽으며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생각으로 어지럽던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학계가 전체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 못한 시점에서 김예란 선생님 발표문은 매우 시기적절하며 여러 성찰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의 성실함에 존경을 표합니다. 김예란 선생님이 다른 연구논문에서도 그래왔듯이 해외 학자들의 여러 논의 현황을 빠르게 검토하고 정리해주셨다는 점에서도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예란 선생님의 발표문도 아직 워킹 페이퍼라는 점에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질문 겸 코멘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발표문에서 매우 흥미로웠던 것은 분석틀입니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철저히 관리되던 이중질서인 ‘분할’과 ‘연결’을 삶과 죽음이라는 축으로 횡단시키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세계를 ‘전쟁모델’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축에는 1) 삶*분할이 자가격리로 표상됐고, 2) 삶*연결이 데이터 공유라는 실행되었으며, 죽음의 축에는 3) 죽음*분할이 핵심노동자로 체현되고 4) 죽음*연결이 집단감염자로 발발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가격리와 데이터 공유, 노동자, 감염자 분류가 같은 층위에서 배치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앞의 두 표상이 행위라면 뒤의 두 표상은 사람이라는 행위자가 드러납니다. 노동자는 ‘핵집단의 노동’으로, 그리고 집단감염은 다른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특히 김예란 선생님이 죽음을 불사한 연결의 사례로 “개인의 고립을 유도하는 생명권력에 맞서는 집합성”으로서 정치시위를 들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구분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5) 연결-> 죽음을 불사한 연결, 6) 분할-죽음을 불사한 분할이라는 두 개의 항은 팬데믹 상황에서 저항성을 드러내는 층위로서 의미있다고 보았습니다. 생명정치의 통치술에서 인간이 ‘죽음을 불사’하는 행위를 선택하여 이중체제 안에서 저항적 주체로 나서는 점을 분석틀 안에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전쟁모델 논의가 좀 더 진전되어도 좋을 것입니다.

이 분석으로부터 이 글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 채 제시하고 있는 대안 개념인 ‘의존’이라는 ‘윤리 가치’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과정에 죽음이 연결되어있는 상황에서, 분할된 ‘핵집단의 노동’이 분할된 자가격리자가 ‘의존’하는 분할이라면 이는 다시 삶을 위한 연결로 개념화 하는 논의가 가능하지 않은가 합니다. ‘이미’ 그러한 현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희생에 대한 감사’라는 온정주의로 덮어버리지 않고 ‘의존’이라는 인식틀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핵심노동에 그에 응분한 상징과 대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삶의 정치와 죽음의 정치가 교묘하게 접합되어 있는 이중체제를 논의함에 있어, 한국과 서구, 비서구를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이중체제의 작동방식나 접합방식이 각 나라의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전세계 (신자유주의의) ‘보편’으로 일반화하고 있어 이중체제에 의해 일어나는 사례가 선택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중체제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방식보다는 한국에서 이러한 이중체제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되고 받아들이고 의미화 되는지를 분석한다면, ‘K-방역’이 단순히 민족주의 국뽕 혹은 선진국 자부심이라는 저널리즘 언어로 소비되는 것을 넘어서, 그리고 서구에서 한국 방역체제를 경찰국가의 감시체제로 단순히 비하하다가 코로나 방역의 리더십으로 모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즉자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넘어, 좀 더 구체적인 생명정치 통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두 번째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 스스로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가 선진국이었구나’라는 감각을 갖게 됐다는 점과도 연관됩니다. 어제의 ‘헬조선’이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선진국’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서구의 시선으로 우리를 발견하는 옥시덴탈리즘이라는 비판은 너무 안이한 것입니다. 한국사회와 한국시민은 생명권력과 죽음권력의 이중체제 안에서 어떤 행위주체로서, 권력의 관계망 안에서 시민성, 시민적 저항성을 형성하는지 혹은 포획되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계급은 이중체제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불평등 계급은 코로나로 더욱 가장 불평등하고 위험한 죽음의 축에 드러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 학문공동체의 구성원은 가장 안전한 위치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주권권력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별거벗은 생명 호모사케르를 양산낼 것을 허용합니다. 한편으로 안전한 중산층 역시 언제 호모사케르의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갈지 모릅니다. 주권권력은 경계선을 계속 다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데이터법이나 정보통신 데이터가 장치로서 우리를 보호하지만 언제 우리를 경계선 밖으로 내보낼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발표문에 담아달라고 요청하기에는 너무 생각의 흐름을 큰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성찰적이며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좋은 글을 읽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